



신사고
민현식

정답 및 해설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C

6

나의 문학, 나의 꿈

(1)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①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천양희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쪽

- 01 (1) ○ (2) ○ (3) ○ (4) ○ (5) ○ (6) × 02 ㉔
 03 ㉠-㉡, ㉢-㉣, ㉤-㉥, ㉦-㉧ 04 반복, 운율

- 01 (6) 이 작품에 등장하는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꺼려 하는 일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 02 이 글은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외적인 측면이 아닌 내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03 이 글의 1연에서는 ‘검은 것’과 ‘흰 것’, 2연에서는 ‘비누 거품’과 ‘맑은 것’, 3연에서는 ‘쓰레기’와 ‘깨끗한 것’, 4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빛’이 대조되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12쪽

- 04 화자는 관찰자로서 이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다.
- 05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연민이나 안타까운 감정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09 화자는 대상을 관찰하고 깨달음을 전하고 있을 뿐 감정 이입을 하고 있지는 않다.
- 10 이 글에서는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보잘것없는 것들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 12 ‘아니다’로 연을 끝맺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14~019쪽

- | | | | | |
|------|------|------|------|------|
| 1 ① | 2 ⑤ | 3 ① | 4 ② | 5 ③ |
| 6 ⑤ | 7 ③ | 8 ① | 9 성자 | 10 ① |
| 11 ④ | 12 ④ | 13 ② | 14 ⑤ | 15 ① |

- 1 화자는 성실하게 열심히 구두를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2 신사고_민현식 | 정답 및 해설

오답 해설 ③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도 빛이 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④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성실하게 마음을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을 강조하고 있다. ⑤ 5연에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 거룩하고 훌륭하다는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2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에게서 빛을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쓰레기를 더럽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닦는 행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관찰하여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 3 이 글에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구사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는 사람’, ‘~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빛이 난다’, ‘~은 아니다’와 같은 시어와 시구, 시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1연~4연에는 통사 구조가 반복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검은 것, 비누 거품, 쓰레기와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의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하찮은 것에서도 빛이 남을 강조하고 있다.

- 4 이 글의 화자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등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5 이 글의 화자는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구두를 닦거나 청소를 하는 행위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의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인의 고독과는 관련이 없다. ②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으나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④ 집약이란 한데 모아서 요약한다는 의미인데, 이 글은 사상이 집약된 시어로 시를 끝맺고 있지 않으며 여운을 남기고 있지도 않다. ⑤ 시어의 반복은 사용되고 있으나 시어의 연쇄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신문적 진술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 6 사상이란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 또는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사람의 손’이라는 소재가 시를 짓기 위한 구상이며 이를 통해 화자의 감정과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독백적 어조가 나타나 있으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2연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2연과 3연 모두 과거 장면이라고 할 수 없다. ④ 3연과 4연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의 정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7 ㉠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진 거칠고 투박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삶에 대한 부지런함과 성실한 태도를 드러낸다.

- 8 이 글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굳이 위험한 상황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을 필요는 없다.

오답 해설 ②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과 표정을 잡기 위해 클로즈업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이 글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시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밝고 따뜻한 음향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어떤 행위 뒤에 빛나는 모습을 화면 영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길 끝에서 빛이 나는 모습, 구두를 닦고 난 후에 검은 것에서 빛이 나는 모습 등을 정지 화면으로 담을 수 있다. ⑤ 카메라의 앵글은 곧 관찰자의 시선과 일치하므로 관찰자의 시선에서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시적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10 ㄱ. 비슷한 시어, 시구, 시행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ㄴ.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동일한 시구가 1연~4연까지 반복됨으로써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ㄴ. 1연~4연까지 비슷한 길이로 행을 배치하고 있다. ㄷ. 화자가 관찰자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삶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1 시상 전개 속도가 3~4연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화자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③ 화자는 1연의 '구두 닦는 사람', 2연의 '창문 닦는 사람', 3연의 '청소하는 사람', 4연의 '마음 닦는 사람'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⑤ '~는 사람', '~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빛이 난다', '~은 아니다와 같은 시어와 시구, 시행을 각 연의 중간중간에 배치함으로써 구조적 통일성을 주고 있다.

12 <보기>의 꽃은 개화를 위해 격정을 인내하고 꽃잎을 피웠으나 이 글의 '구두 닦는 사람'이나 '창문 닦는 사람' 등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물론 화자는 그들의 행위 자체에서 빛을 발견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기>의 '열매'와 같은 의미를 그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4연 '열매 맺는 / 가을을 향하여 /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에서 가을의 열매를 위해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이 글에서도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등의 표현을 통해 빛이 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닦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6연에서 '샬터에 돌 고이듯 성숙하는 / 내 영혼의 슬픈 눈'을 통해 아픔 속에 이루어지는 성숙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행위 속에서 성자 같은 청소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③ <보기>의 1연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모습이 아름답듯이, 이 글에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다. ⑤ <보기>의 3연에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역설적 표현으로, 성숙한 만남을 위해서는 헤어짐이 있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주 반복되는 시어, 시구, 시행 등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3 ②는 작품의 해석과 평가를 뒷받침할 근거로 활용할 요소를 작품 안에서 선택한 내재적 관점, 즉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외재적 감상 중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작가의 성장 배경, 가치관, 체험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인 표현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다. ③, ④ 외재적 감상 중 작품의 창작 목적은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보아 작품이 독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효용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다. ⑤ 외재적 감상 중 작품은 창작 당시 삶의 모습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아 작품에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반영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다.

14 화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을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서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고 있다.

15 구두 닦는 사람인 A씨는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므로 자신의 일에 불평하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처럼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손님 대사를 통해 A씨가 자신의 일인 구두 닦는 일에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두가 반짝반짝 광이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글의 1연에서 닦인 후 빛이 나는 구두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 A씨는 자신이 닦은 구두가 빛이 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는 데, 이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으로 1연의 '구두 닦는 사람'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 ㉤ B씨는 창문 닦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으며 깨끗해지는 창문을 보며 상쾌한 기분을 느껴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는 이 글의 2연에 등장하는 창문 닦는 사람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20~025쪽

1 ⑤	2 ⑤	3 ③	4 ③	5 ②
6 ④	7 ②	8 ④	9 ③	10 ①
11 ⑤	12 심자	13 해설 참고		

1 이 글은 대상들의 긍정적인 속성을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평가나 대상들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③ 검은 것과 흰 것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④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등 여러 대상을 제시하고 그들이 모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취해 시각이라는 감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상황을 친밀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평범한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시간적 배경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독백적 어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다양한 반복적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를 통해 시적 상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3 ㄱ. ㉠~㉣은 이 글의 등장인물로, 시상 전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ㄷ. ㉠('마음 닦는 사람')은 성실하게 자신의 내면을 닦는 사람으로서 이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치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ㄴ. ㉡의 성자는 '거룩하고 훌륭하며 본받을 만한 존재'를 뜻하는 말로, 이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통해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청소부는 성자처럼 거룩하고 훌륭하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ㄴ. ㉠은 실제로 '창문 닦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ㄱ. '구두, 비누 거품, 쓰레기, 손' 등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는 사소해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ㄴ. 화자는 시적 대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ㄷ. 화자는 시적 대상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므로 대상에 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ㄴ. 등장인물의 상황은 제시되어 있으나 화자의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대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03 어머니는 수술 후 허공에서 빨래를 개기는 헛손질을 하는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
- 04 ‘앞부분의 줄거리’는 배경이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이 있으며, 제시문이 장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 06 (5) ‘나’는 어머니의 나이가 여든여섯인만큼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넘보는 것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어머니가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승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길 바라고 있다.
- 07 어머니는 극단적인 공포심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환각으로 인한 것이지 수술로 인한 고통과는 관련이 없다.
- 08 <보기>에서 ‘한국 전쟁 중에 ‘나’의 오빠가 인민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하였으므로 어머니는 인민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9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나’가 곧 서술자이며 주인공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하면서 아울러 자신의 내면세계도 드러내고 있다.
- 10 (3) 7에서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라는 부분을 통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나’는 환각 속에서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아들을 지켜 내기 위해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민군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절박한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회상이 아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② 경험에서 비롯된 행동이 나타나지만 삽화 형식은 아니다. ③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⑤ ‘나’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12 ‘나’가 어머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환각 속이 아닌,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이다.
- 13 ‘나’는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지, 차라리 죽게 하소서, 그 몸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라고 생각하며 어머니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②가 적절하다. 나머지는 이 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14 (6) 수간호원은 상황을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어머니를 끈으로 묶었으나 끈이 끊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했다.
- 15 이 글은 전쟁의 잔혹함과 그 상처로 인한 치절함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잘 표현된 작품이다.
- 16 어머니와 ‘나’는 전쟁 중 혈육을 잃은 비극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에 맞서는 것은 온전히 두 사람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은 것이다.

- 17 이 글에는 환각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아들을 잃은 기억이 되살아나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18 (5) 이 글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했다가(중략 부분의 줄거리)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6) 10에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겉으로는 어머니에게 대응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공포와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나’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각 속에서 인민군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 19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나’가 전쟁 당시 오빠의 죽음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 글의 구성 단계상 절정에 해당한다.
- 20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과거 회상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 ‘나’가 인민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어머니가 환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타나지 않으며 목망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사건을 이끌어 간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21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나’가 인민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으로서, 어머니의 환각이 진악한 인민군 때문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전쟁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한다.
- 22 (3) 이 글에서 친구는 어머니의 사후 대비를 미리 해 놔야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나’는 고향에 선영이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고향에 묻히지 못함을 확인시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23 이 부분에서는 ‘나’와 친구의 대화, ‘나’와 어머니의 대화 위주의 서술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24 ‘나’는 고향에 선영(先塋)이 있고, 어머니가 사후에 그 선영 곁에 묻히길 바라고 계시므로 사후 준비를 미리 해 놓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친구는 ‘나’가 말한 선영이 어머니의 사후 준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 26 (3) 가루가 된 오빠의 시신을 강화도 근처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북녘을 향해 뿌렸다고 하였다. (6) ‘나’는 어머니의 유언에 대해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며 유언에 따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27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뒤, 오빠의 시신이 한 줌의 가루가 되어 강화도 근처에서 날리던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시신을 오빠처럼 해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28 어머니의 유언을 통해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한으로 남아 있는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으므로 어머니에게는 이 한이 ‘말뚝’인 셈이다.

- 03 '나'가 자신의 경험과 내면 심리를 이야기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05 어머니가 두려워한 대상은 환각 상태에서 보게 된, 아들을 죽인 군관이다.
- 07 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09 딸이 아니라 며느리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0 오빠의 유골을 뿌리는 어머니는 씩씩하고 도전적인 모습이었다.
- 13 '나'는 결국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어머니의 유언을 실천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44~053쪽

1 ③	2 ④	3 ④	4 ④	5 ③
6 "그놈이 또 왔다. 허느님 맏소사. 그놈이 또 왔어."	7 ②			
8 ①	9 ⑤	10 오빠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이다.		
11 ①	12 ③	13 ②	14 ④	15 ④
16 해설 참고				

- 1 어머니가 수술 후 환각 상태에서 오래전 어린 자녀들을 키우던 시절로 의식이 돌아가 뒤섞인 빨래들을 개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어머니 병실에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어머니는 빨래를 개는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공포의 대상을 만났을 때로 의식이 바뀌어 공포에 질린 소리로 "그놈이 또 왔다."라며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④ 어머니는 굉장한 힘으로 '나'의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데 이는 환각 상태에서 만나게 된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간호원은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걱정하는 '나'에게 마취 끝에 더러 이상 행동을 하는 환자들도 있으며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 2 '나'는 환각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즉 간호원을 믿을 수 없어 환각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하루 전부터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을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는 놀라기보다는 다리가 떨릴 만큼 겁을 먹고 있다. ② '나'는 어머니가 주무실 수 있게 수면제나 주사를 놓아 달라고 간호원에게 청하지만 간호원은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고 있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③ '나'는 어머니가 신경 안정제를 드시고 그 약의 부작용으로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 된 대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로 보아 '나가 어머니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가.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걱정하는 '나'에게 간호원은 관심이 거의 없이 심드렁하게 말하고 있다. 나. '나'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 주든지 하라고 간호원에게 요구하였으나 간호원은 오히려 그런 '나'를 쓰아붙여 '나'는 무안해하고 노여움을 느낀다. 라. 어머니는 별안간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되는데 이는 어머니의 눈앞에 무언가 극도로 고통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오답 해설 다. '나'는 오히려 저승사자에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다. 다만 저승사자가 어머니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 4 [A]에서는 대수술 끝에 깨어난 어머니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여 '나'를 겁나게 만드는 대화 장면을 통해 어머니의 상황이 비정상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공간적 배경이 병실임이 드러나 있지만 구체적인 배경 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② 요약적 제시가 아닌 대화를 통한 구체적 장면 묘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③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따라서 서술자는 작품 안에 존재한다. ⑤ 중심인물인 어머니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간호원이 병실에 들어와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는 부분은 시간적 흐름을 따른 것이므로 잠시 시선을 돌리게 하거나 장면 전환을 매끄럽게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은 적절하지 않다. 컷어웨이로 적절한 장면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 잠깐 밖의 풍경을 삽입하는 경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시점에 초점을 맞춰 카메라 앵글을 잡는 것은 적절하다. ② 어머니가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 환각 상태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으므로 등장인물은 어머니와 '나' 그리고 간호원이며 공간적 배경은 병실로 장면 구성을 할 수 있다. ④ 숏은 카메라 기법의 단위로서 이 장면은 장소 변화가 없어 병실에서만의 속으로 장면을 담을 수 있다. ⑤ 어머니가 빨래를 개기는 행위는 어머니의 의식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는 과거 회상 장면으로 삽입할 수 있다.
- 7 수간호원은 어머니가 왜 몸부림치는지 그 내면의 상처는 모른 채 단순히 특이 체질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더더욱 겁이 났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어머니는 자신의 다리를 아들로 착각하고 과거 아들이 죽던 상황을 환각으로 보면서 이를 갈고 기성을 지르며 몸부림치고 있다. ④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8 ③은 저승사자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⑥~⑧은 인민군 군관을 지칭한다.
- 9 어머니가 인민군 군관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인민군 군관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태도가 달라지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인민군 군관 앞에서 아들을 지키려고 아무할 때는 '군관 니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 등의 존대하는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다. ②, ③ 어머니는 군관에게 아들의 목숨을 구걸할 때는 '나오리'로 높여 부르고 있고, 아들을 죽인 군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낼 때는 '노놈'이라고 부르고 있다. ④ 어머니가 군관을 '노놈'이라며 비속어를 사용하여 부르는 것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군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때문이다.

11 속수무책(束手無策)이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한다.’는 뜻으로, 어머니가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이다.

오답 해설 ②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③ 혼정신성(昏定晨省): 밤에는 부모의 침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④ 전전반측(顛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할. ⑤ 조삼모사(朝三暮四):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12 ‘나’가 이 상황을 ㉠과 같이 생각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전쟁의 비극을 겪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한 모녀만이 간직한 한(恨)이기 때문이다(㉡, ㉢).

13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로 보아,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을 자기 죄처럼 여겨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는데 아들을 화상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또한 그런 어머니의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어머니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③ 어머니는 전쟁이 가져온 비참한 운명에 순응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④ 어머니는 과거에 자신이 아들의 뱃가루를 고향이 보이는 강화도의 바닷가에서 바람에 날린 것처럼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뱃가루를 똑같이 처리해 줄 것을 ‘나’에게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짓’은 고향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뱃가루를 바람에 날려 보내는 일을 말한다. ⑤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통해 ‘나’가 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어머니가 자신의 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한 이유는 전쟁 때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딸만이 자신의 유언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환각 상태에서 정신이 돌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어머니는 과거 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후 그 뱃가루를 고향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바람에 날려 보낸 것처럼 자신이 죽은 후 똑같이 해 달라고 ‘나’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③ 눈을 뜬 어머니의 모습이 임종을 앞둔 사람 같지 않게 또렷하고 생기가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놀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어머니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15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를 통해 어머니가 남북의 분단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 원작의 시점을 살려 촬영한다고 했으니 이 글의 시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살려 ‘나’의 시선에 맞춰 촬영한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② ㉡. 병실 장면에서 과거 회상 장면인 오빠의 뱃가루를 날린 장소인 개풍군 땅이 보이는 강화도 근처 바닷가 장면으로 넘어갈 때는 화면과 화면이 겹치는 오버랩(overlap)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 어머니는 아들의 뱃가루를 날리며 가슴에 한이 맺혔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비통함을 드러내기 위해 어머니의 모습을 크게 확대하는 클로즈업(close-up)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⑤ ‘나’는 고향이 보이는 강화도의 바닷가에서 뱃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행위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괴로워하는 심리가 나타나도록 연기하려는 계획은 적절하다.

16 모범 답안

㉠	는	분	단	으	로	희	생	된	아	들	을	잊	지
못	하	고	죽	어	서	나	마	자	식	과	함	계	있
고													
싶	은	어	머	니	의	소	망	을	뜻	한	다	.	작
이	를	통	해	전	쟁	과	분	단	으	로	인	한	우
민	족	의	한	,	분	단	의	아	픔	을	극	복	하
하	는	의	지	와	소	망	을	드	러	내	고	있	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54~063쪽

1 ②	2 ④	3 ④	4 ②	5 ③
6 ③	7 ⑤	8 ㉠-㉡-㉢-㉣-㉤	9 ②	
10 ③	11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과거 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을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12 ④	13 ⑤	14 ⑤		

1 ㉠. 1인칭 주인공인 ‘나’의 시각을 중심으로 어머니가 수술 후 환각에 시달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환각 상태인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대한 서술자 ‘나’의 해석을 통해 어머니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군관과 길등을 밟고 있지만 이는 현실이 아니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이 글은 액자식 구성이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이 글에서 성격이 변화하는 입체적인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2 어머니가 발휘하는 괴력은 환각 상태에서 과거 아들을 잃은 사건을 다시 마주하게 된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인민군을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군관 나으리’ 등으로 높여서 부르는 이유는 군관의 환심을 사 아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②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 밥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라는 부분에서 ‘나’는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자기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될까 봐 염려하고 있다. ③ ‘공포와 아직도 한 가득 기대를 건 ~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에서 어머니의 외양 묘사를 통해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처절한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어머니와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려고 한다.

3 <보기 1>에 제시된 행동은 모두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이 환각을 통해 몸부림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는 전쟁 당시의 비극적 기억을 드러내는 한편,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의 심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고 그만큼 독자와의 거리도 가깝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이 글은 작품 속에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인물로 등장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③ 어머니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의 경험과 내면 심리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5 <보기>에서 작가는 분단은 이제 하나의 기정사실이며 통일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통일이란 말이 실천은 빠진 한낱 구호로써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이는 통일은 멀고 분단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어머니를 통해 전쟁의 비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보기>를 참고할 때 작가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쟁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후에도 이어지는 '분단의 고통과 통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② 입으로만 통일을 말하는 현대인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맞으나 '나'도 전쟁을 겪은 사람이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④ 여전히 고통을 안고 사는 어머니를 통해 아직도 분단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 주는지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아픔을 잃은 어머니를 통해 분단의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아픔을 통해 아산가족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니님!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판 모자를 사 놓니?”에서 나타나는 ‘나’가 어머니의 모자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고향에 묻히지 못함을 확인시켜 드릴 필요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사후에 고향의 선영에 묻히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한이 서린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머니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기미가 없이 누워 있었지만 다만 유통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삿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으로 의식이 남아 있음을 나타냈다. ④ 친구는 수의와 모지 등 어머니의 사후에 있을 장례 대비를 하지 않은 ‘나’를 ‘나 이롱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 ⑤ 친구는 이북 땅인 개풍군 고향에 조상의 무덤인 선영이 있다는 ‘나’의 말에 북한에 두고 온 땅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나’를 몰아세우는데 이는 분단이 고착화된 현실 인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7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고향에 묻히지 못함을 확인시켜 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모자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향인 개풍군에 모자를 구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친척이나 친구는 어머니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장례 절차를 얘기하고 천수를 누렸다고 위로하는 등 의식이 있는 어머니를 서슴지 않고 행동을 한다. 이런 행동에 대해 ‘나’가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② 친구는 ‘나’를 ‘나 이롱 딸’이라 지칭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사후 대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말이다. ③ ‘나’가 친구의 이야기에 변명하고 싶은 이유는 어머니가 묻힐 곳도 없는 처지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문이다. ④ 친구는 북쪽에 있는 조상의 선영은 소용이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분단의 고착화라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9 작품 속 서술자는 작가의 대변인은 될 수 있어도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작품 속 서술자인 ‘나’는 작가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 위해 만든 허구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추상적으로 흐르기 쉬운 분단 문제를 작품 속 어머니의 삶을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아픔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개풍군이라는 실제 지명은 소설의 개연성을 높여 주며 이를 통해 작품의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작가 박완서도 한국 전쟁 때 혈육을 잃은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⑤ 작가의 경험이 녹아들어가 작품 속에 전쟁이라는 시대적 아픔이 반영되고 있다.

10 [A]의 뒤에 이어지는 ‘나’의 회상을 통해 어머니가 오빠를 화장한 것은 고향 땅에 못 묻히는 한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비극이라는 엄청난 것과의 싸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것이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모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땅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② 어머니는 자신이 죽은 아들을 화장한 것처럼 자신도 죽으면 화장을 해 달라고 유언하고 있다. ④ 유언을 남기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강한 뜻과 고집이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분단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⑤ 어머니가 ‘나’에게 유언을 부탁한 것은 전쟁 때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나’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유언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2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어머니는 운명에 순응하며 한을 삭이는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가 결국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서 어머니와의 거리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②, ⑤ ‘나’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발작을 일으킨 어머니를 보고 과거 인민군 군관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오빠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게 된다. ③ ‘나’가 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쟁의 상처가 가슴에 한으로 남은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이다.

13 말뚝이란 땅에 두드려 박는 기둥이나 몽둥이로, 한 번 땅에 박히면 웬만해서는 뽑히지 않는 기둥을 말한다. 이로 보아 ‘엄마의 말뚝’이라는 제목은 ‘나의 가족의 삶의 터전, 어머니의 의지나 신념,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한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투병하던 7년여 세월 동안의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14 <보기>에서 외할머니가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달래는 모습은 구렁이를 삼촌의 현실으로 보는 것으로 초자연적 존재와의 교류를 나타낸 샤머니즘 풍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화장은 시체를 불에 살라 장사 지내는 장례 문화의 일종으로, 샤머니즘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아픔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드러나 있다. ③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의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반면, <보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속 서술자가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사이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수술 후 환각 상태를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치유되지 않는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와 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보기>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을 통해 남북 분단이라는 이념의 대립을 드러내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화해를 통해 분단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2) 책으로 찾는 길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권오철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67~069쪽

- 01 (1) ○ (2) ○ (3) × (4) ○ (5) ○ 02 ④ 03 ① 04 ⑤
05 (1) ○ (2) ○ (3) ○ (4) ○ (5) × (6) ○ 06 ④ 07 ③ 08 ⑤

- 01 (3) 처음에 필자는 친구가 빌려준 책으로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흥미를 느끼게 되자 스스로 책을 구입하여 읽고, 하늘의 별을 직접 관찰하였다.
- 02 이 글은 필자의 직업이 천체 사진가이며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일화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는 수필이다.
- 03 수필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토대로 진솔하게 쓰는 문학 장르이다. 이 글에서도 필자가 별에 관심을 갖게 된 경험이 서술되는 가운데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수필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 04 필자의 관심이 '새'에서 '별'로 옮겨 가게 된 이유는 친구가 빌려준 별자리 관련 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로 별 관련 책을 더욱 많이 읽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직업까지 선택하게 되었다.
- 05 (5) 필자는 취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진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책을 통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06 이 글의 필자는 독서와 비교되는 다른 대상들을 언급하며 독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독서가 주는 장점을 설명하며 독자들에게 독서를 권유하고 있다.
- 07 필자는 천체 사진을 찍기 위해 서점에 있는 카메라 관련 책부터 사진 관련 잡지, 사진 학과 친구들의 수업 교재, 그리고 많은 연습을 통해 열정적으로 매달렸다고 했다. 그러나 사진 학과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다는 언급은 없다.
- 08 필자는 독서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하면서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70쪽

- 04 별자리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던 필자의 친구가 책을 필자에게 빌려주었다.
- 05 필자는 별자리 관련 책을 읽기 전까지는 새에 빠져 있었다.
- 06 사진과 카메라에 대해 알고 싶어 사진과 관련된 잡지들도 읽고 사진 학과 친구들이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책들까지 찾아 읽었지만 사진을 전공하지는 않았다.
- 08 고등학생 때 읽은 별자리를 소개하는 책의 개정판 사진은 필자가 촬영하였다.
- 10 망원경으로 관측되는 천체의 모습은 사진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뚜렷하게 보였다.
- 11 천체 사진가는 밤하늘의 별과 천문 현상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72~079쪽

1 ⑤	2 ⑤	3 ⑤	4 ②	5 ④
6 ④	7 ④	8 ②	9 ②	10 ②
11 ②	12 ⑤			

- 1 1. 필자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빌려준 별자리에 관한 책을 읽고 천체 사진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2. 3. 4. 필자는 중학생 때 관심을 가졌던 새에 대한 지식도 책을 통해 얻었고, 천체 사진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것도 책이었으며, 또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천체 사진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책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필자는 독서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 2 2. 과제를 위해 별에 관한 책을 찾아 읽은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친구가 빌려준 별자리 책에 흥미를 느껴 읽은 것이다.
오답해설 ① 고등학교 때 친구가 빌려준 별자리를 소개하는 책을 접한 후부터 밤하늘 여행, 즉 밤하늘에 떠 있는 진짜 별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②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고, 그러다 직업이 되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니 행복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③ 어느 날 친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순간 일곱 개의 별이 마음속에 박힌 뒤로 필자는 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④ 필자는 별자리 관련 책을 읽기 전까지는 새에 빠져 있던 소년으로 백과사전, 조류 도감 등을 보며 새에 대해 공부했다.
- 3 3. ③은 고등학교 시절 우연한 독서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 자신의 경험을 밝힘으로써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과학적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해설 ① 북두칠성을 본 뒤로 필자는 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② 친구는 별자리를 소개하는 책을 읽고 별자리를 알아 가는 중이다. ③ 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필자는 점점 더 많은 책을 찾게 되었으며 결국 망원경을 만드는 법과 점성학까지 관심사를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④ 필자는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 자세히 보기 위해서 천체 사진을 직접 찍기 시작했다.
- 4 4.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경험의 중요성이다. 즉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진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5 5. 필자는 아름다운 천체의 모습을 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직접 천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카메라는 다루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결과물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천체 사진을 위해 많은 지식을 공부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높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기술에 관련된 책부터 찾아 읽어 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필자는 학생 시절에 우연히 접한 책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인생도 바꿀 수 있었다. ②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 적성 등을 찾기 위해 다양한 책을 접할 필요가 있다. ③ 필자의 별에 대한 관심이 나중에 행성에 관한 책, 망원경 만드는 법과 점성학에 관련된 책들로 독서의 확장이 일어난 것을 통해, 학생들도 자신의 관심사를 찾게 되면 관심사와 관련된 더 많은 책을 찾아 읽어 볼 수 있다. ⑤ 필자가 천체 사진을 위해 카메라와 사진의 기본 원리부터 공부한 것처럼 학생들도 기본을 탄탄히 해야 더 어려운 전문 지식까지 넓힐 수 있다.

6 가. 이 글은 학창 시절 한 권의 책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게 된 경험을 통해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보기 1> 역시 '청소년 시기에 좋은 책을 ~ 값진 경험이다.'에서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라. 이 글의 필자는 고등학생 때 읽은 책의 영향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보기 1>에서도 청소년기의 독서에서 받은 강한 인상이 어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1>은 모두 한 권의 책이 개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답 해설 나. 독서는 지식을 쌓는 정신적인 행위로서 삶에서 필요한 행위이지만 이 글이나 <보기>에서 이것이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7 A는 나이가 들어도 책을 읽는 데 두려움이 없고 책을 즐겨 읽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으나 B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A가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읽었던 책의 힘이다. 마찬가지로 B도 고등학교 때 별자리에 관련된 책을 읽고 천체 사진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② A가 내용이 정제된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B도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 지금도 책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③ A가 책을 읽으면서 키운 감성과 지식, 상상력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이 됐듯이, B도 세에 관한 지식, 카메라와 사진에 관한 전문적 지식 등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⑤ A가 감성이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다양해졌다고 한 것은 독서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B 또한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8 천체 사진가가 지금은 흔한 직업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천체 사진가는 밤하늘의 별과 천문 현상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③ 필자와 별과의 인연은 고등학교 때 읽은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담은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되었다. ④ 필자는 별자리에 관련된 책이 너무 재미 있어서 서점에 가서 바로 그 책을 구입한 후, 매일같이 밤하늘을 관찰하였다. ⑤ 필자는 별자리에 관한 한 권의 책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9 가. 처음에 진행자가 “오늘은 천체 사진가님을 모시고 진로 독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며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다. 진행자는 사진가가 두 번째 발화에서 제시한 천체 사진가가 하는 일을 반복하며 흔하지 않은 직업이라 생각한다며 연계된 질문을 하고 있다. 라. 준언어적 표현은 ‘목소리를 높이며’를 통해, 비언어적 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나. 천체 사진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전문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라. 사진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행자의 말을 일부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10 인간의 눈이 가진 특성상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천체의 모습은 사진에서 보던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뿌옇게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㉑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필자는 천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사진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아름다운 천체의 모습을 담은 기술적 측면이나 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③ 필자는 새벽까지 별을 보다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남쪽을고기자리의 일등성 포말하우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다고 하였으므로 글을 읽으면서 독자는 포말하우트라는 별의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④ 필자는 자신의 적성, 흥미,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⑤ 필자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접한 별자리에 관한 책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경험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11 고전은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 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리나라와 피와 살이 되고 재미를 더해 준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필자는 특별 활동 시간에 도서관에서 한자로 제목이 써져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중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한자로 제목이 써져 있는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필자가 3학년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지만 그 책이 자신의 일생을 바꾸었고 지금 작가가 되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④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필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에 처음 해 보았는데, 이를 통해 글이 몇백 년 전의 글을 쓴 사람과 현재의 필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⑤ 고전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리나라고 피와 살이 되는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읽기를 바라는 필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12 나. 필자는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의 일원이 되는 것을 겪어 보았기에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필자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은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박지원이 쓴 한문 고전 소설이다. 라. 필자는 2학년 때 산악반 활동의 경험에 비추어 되도록 3학년 때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 활동반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서관이었다.

오답 해설 가. 필자는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예스러운 문체를 어렵게 느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80~087쪽

1 ①	2 ②	3 ④	4 ①	5 ③
6 ⑤	7 ④	8 ①	9 ⑤	10 ④
11 ①	12 해설 참고	13 해설 참고		

1 고등학교 때 친구가 별자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맞지만 그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 친구도 별자리 책을 통해 별자리에 대해 알아 가는 중이었다.

오답 해설 ② 필자는 망원경으로 천체의 모습을 관찰했을 때 사진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뿌옇게만 보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③ 필자는 카메라를 들고 직접 천체 사진을 찍고 싶어 카메라의 기본 원리부터 사진의 기본 원리까지 책을 통해 많은 공부를 했다. ④ 천체 사진가라는 직업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없던 직업이고, 세계에서 몇 명 없는 직업이기도 했다. ⑤ 필자는 책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독서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2 필자는 요즘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책을 통한 경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오답 해설 ①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인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신어 보지 않았다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기에 자신이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필자는 아름다운 천체 사진을 위해 카메라의 기본 원리부터 사진의 기본 원리까지 많은 공부를 통해 기술적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였다. ④ 필자는 자신을 스스로 알기까지는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며 직접 경험이란 간접 경험이란 자신이 경험한 것까지가 바

로 자신의 한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⑤ 필자는 천체 사진가로서 좋아하는 일을 하니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3 이 글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독서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수필로서 교훈적, 회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 이 글의 필자가 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시선을 개방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오답 해설 ② 필자는 책을 통해 천체 사진가라는 세상으로 발을 디딜 수 있었다. ③ 필자는 책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었다. ④ 필자는 고등학교 때 접한 한 권의 책과의 인연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었다. ⑤ 필자는 책에서 얻은 지식을 통해 삶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5 나. 천체 사진을 찍는 일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필자는 카메라나 사진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고 하였다. 다. 필자의 원래 관심사는 새였지만 친구가 빌려준 책을 읽은 후 별자리로 관심사가 옮겨 갔다.

오답 해설 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천체의 모습이 사진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뿌옇게만 보여 무척 실망했다고 하였다. 라. 필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천체 사진가라는 직업을 목표로 삼아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접한 별에 관한 책으로부터 시작하여 관심사를 확장하고 공부한 결과 천체 사진가가 된 것이다.

6 필자가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보다 책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지, 책에 실려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 매체에 실려 있는 정보보다 더 방대해서는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성단, 성운, 은하에 관한 책도 보고 행성에 관한 책들도 보게 되는 등 독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필자는 주로 책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 ③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 성인인 된 시점까지 한 권의 책이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신어 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 <보기>에 따르면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필자가 평생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매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필자가 진로 독서의 필요성을 청소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한 조언 내용이다. ② 필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를 발견하면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가질 수 있다는 조언은 적절한 내용이다. ③ 필자가 좋아하는 일을 꿈으로 삼아 행복하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꿈으로 삼으면 인생이 궁색해지지 않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한 조언이다. ⑤ 필자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를 위해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절한 조언 내용이다.

8 이 학생은 의상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우리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학생의 관심사는 오직 한복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④ 이 학생은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실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이다. ③ 한복의 아름다움에 꼭 빠진 또 다른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과 진로가 비슷할 수 있다. ⑤ 이 학생이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겠다고 한 데에는 평소 한복이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옷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⑥와 같이 반응할 수 있다.

9 이 글의 필자는 지금도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책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가 한복을 만드는 법에 관련된 정보를 책 대신 인터넷에서 찾으라고 하는 조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독서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이므로 필자는 이 학생에게 한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책을 통해 얻으라고 조언할 수 있다. ② 필자가 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책을 찾게 되어 망원경 만드는 법과 점성학 책 등 독서의 확장을 경험한 것처럼 이 학생도 한복과 관련된 독서를 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관심사가 확장될 수 있다. ③ 독서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독서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④ 필자가 천체 사진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학창 시절에 읽은 별자리에 관한 책 덕분이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라고 조언할 수 있다.

10 **오답 해설** 마. <보기 1>의 필자는 책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준다고 하였으며 책은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하였으나, 이 글의 필자는 책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책을 통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오답 해설** 다. 독서 일지를 작성할 때는 꼭 모든 항목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항목만 취사선택해서 작성하도록 한다. 마. 아무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가 아닌데도 끝까지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이 진로 독서의 방법이다.

12 **모범 답안**

독서	는	필요	한	지식	을	얻을	수	있	게
해	주	며	, 깊고	넓은	경험	을	통	해	특
정	분	야	에	대	한	관	심	사	도
다	.	또	한	독	서	는	미	래	를
효	과	적	인	투	자	로	서	꿈	을
목	도	와	준	다	.				

13 **모범 답안**

②	에	서	필	자	는	책	을	통	해	새	에	대	한
다	양	한	지	식	을	얻	었	다	.	그	리	고	①
는	별	에	관	심	을	가	지	게	되	어	별	에	대
한	다	양	한	지	식	을	책	을	통	해	얻	을	수
있	었	다	.	또	한	③	에	서	는	천	체	등	아
서	활	동	하	면	서	별	을	더	욱	선	명	하	게
수	있	는	천	체	사	진	을	찍	기	위	해	사	진
과	관	련	된	잡	지	들	을	읽	었	으	며	,	사
학	과	친	구	들	이	수	업	교	재	로	사	용	하
책	들	까	지	찾	아	읽	으	면	서	사	진	에	대
다	양	한	지	식	을	얻	을	수	있	었	다	.	

7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1) 우리의 노래

① 향가와 시조 - ② 제망매가 - 월명사 / 나 시조 두 편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93~095쪽

- 01 (1) ○ (2) ○ (3) ○ (4) ○ (5) × (6) ○ (7) ○ 02 ㉓
 03 ① 04 ㉑-㉒, ㉑-㉓, ㉑-㉔, ㉑-㉕, ㉑-㉖, ㉑-㉗
 0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6 ㉓ 07 ㉒ 08 ㉕ 09 서리서리, 구뽕구뽕

- 01 (5) 화자는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에 안타까움과 슬픔,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다. 그러나 혈육을 잃은 슬픔에 머물지 않고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 02 이 글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 누이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삶의 무상감 →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소망'과 같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 03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지만 이를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누이의 죽음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5 (1) 화자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자연으로 도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9) 입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입을 원망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
- 06 화자는 십 년간 계획하여 작은 초가집을 지었다.
오답 해설 ① '나', '둘', '청풍'이 있는 초가(근경)에서 강산(원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중장에서 '나'와 '둘', '청풍'이 어우러지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의인법을 통해 나타내었다. ⑤ 자연 속에서 집을 짓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소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07 화자는 십 년을 계획하여 초가집을 짓고 마침내 자연에 들어가 '둘', '청풍' 등과 하나가 되어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화자에게 있어 자연은 귀의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08 입의 부재라는 부정적 시간을 '동지스들 기나긴 밤'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계절의 변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9 '서리서리'는 노끈이나 새끼 등을 둥그랗게 포개어 감은 모양을, '구뽕구뽕'은 구불구불 굽은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음성 상징어에 해당한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96쪽

- 02 누이의 죽음이 병환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12 신사고·민현식 | 정답 및 해설

- 05 시조는 고려 시대 말기부터 발달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08 <십년을 경영하여……>에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10 <십년을 경영하여……>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12 '동지스들 기나긴 밤'은 부정적 시간이고 '어른 남 오신 날 밤'은 긍정적 시간으로, 서로 대조적인 상황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98~103쪽

- 1 ① 2 ㉓ 3 ④ 4 ㉓ 5 ㉒
 6 ④ 7 ㉓ 8 ㉓ 9 한 부모 10 물아일체
 11 우리말 12 ㉕ 13 ㉑: (죽은) 누이, ㉑: 화자 14 ①, ④
 15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종교적인 의식 16 해설 참고

- 1 (가)는 '1~4구(기), 5~8구(서), 9~10구(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3단 구성이고, (나)와 (다)는 '초장-중장-종장'의 3단 구성이다.
오답 해설 ② (가)에만 시상을 전환하는 어구('아야')가 있다. ③ (가)에만 해당한다. ④ 끝결미는 (가)~(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⑤ (다)에서 화자가 입이 없는 상황에서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입이 부재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가)는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2 (나)에 제시된 '둘, 청풍, 강산' 등은 대조되는 자연물로 제시된 것이 아니며, (다) 역시 객관적 상관물에 감정이 이입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창작한 작품이고, (나)는 자연 속에서 안빈낙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② (가)의 화자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사랑하는 입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다. ④ (가)와 같은 10구체 향가는 낙구 첫머리에 '아야', '아으' 같은 감탄사가 나타나며, (나)·(다)와 같은 시조는 종장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된다. ⑤ (가)의 화자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입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기다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3 (나)에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④는 끊임없는 학문 수양에의 다짐을 노래한 것으로, (나)와 정서가 다르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의 화자는 죽은 누이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있으므로, 사별의 정한입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적 슬픔을 노래한 ①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심정을 노래한 ②와 정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소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나)와 정서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⑤ (다)는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입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⑤와 정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4 '둘'과 '청풍'을 의인화한 표현과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는 기발한 발상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구절의 반복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자연물(바람, 잎, 가지)을 통한 비유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의인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자연물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있지 않다. ④ 참신한 발상은 나타나

있으나, 관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입이 없는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바꾸는 능동성을 보이고 있다.

5 (가)의 화자는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입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가)와 (다) 모두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⑤ (다)에서 '동지사들 기나긴 밤'과 '어론 남 오신 날 밤'이 대비되기는 하지만, 이는 운명에 대한 극복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6 (가)와 <보기>의 화자는 이별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이별의 아픔을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극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만남과 이별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9~10구에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나타나 있고 <보기>에는 떠난 사람을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자발반(去者必返)이라는 불교의 사상이 나타나 있다.

7 ㉠은 누이의 죽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8 <보기>에서 성삼문은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고 했으며, <보기>의 시조에서는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의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세조 옆에서 신하의 도리를 다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⑤ <보기>의 작가인 성삼문은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의를 지키며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인물이다. ②, ④ (다)의 화자는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바탕으로 입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2 기(1~4구):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 서(5~8구): 혈육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 - 결(9~10구): 인간적 고뇌와 종교적 승화

14 ① 이 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서, <보기>의 화자는 나라의 멸망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④ 이 글은 10구체 향가로, 향가의 3단 구성 및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로 계승되어 <보기>의 초·중·종장의 3단 구성과 종장의 첫 음보 3음절인 '어즈버'로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나라가 망한 데서 오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③ 이 글에는 '나'라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만, <보기>에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⑤ <보기>의 중장에서 자연과 인간의 특성이 대조되었다. (가)에는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16 모범 답안

①	을	통	해	10	구	체	향	가	의	낙	구	첫	머
리	는	감	탄	사	로	시	작	하	는	형	식	을	취
알	수	있	다	.	10	구	체	향	가	에	서	는	이
한	①	을	통	해	시	상	을	전	환	한	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04~109쪽

- 1 ④ 2 ① 3 ③, ⑤ 4 ④ 5 ⑤
6 ① 7 ② 8 ④ 9 에 10 ③

11 동지사들 기나긴 밤

12 '서리서리'와 '구부구부'라는 우리말의 모미를 잘 살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13 해설 참고

1 (가)는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로, (가)와 (나) 모두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시조로, '초창-중창-종장'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②, ③ (가)와 같은 평시조는 주로 사대부 계층이 창작했으며, 유교적 충의 사상이나 유교충정, 자연에서 즐기는 흥과 여유를 표현하였다. 반면 (나)와 같은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창작했으며, 실생활이나 현실에 대한 풍자,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하였다. ⑤ (가)의 작자층은 사대부 계층이었으므로 한자어를 많이 사용했으며, (나)의 작자층은 평민이었으므로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2 '경영하여'는 '계획하여'의 뜻이다.

3 (가)의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내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③과 ⑤의 화자 역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흥취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에 드러나는 삶의 자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부모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 ②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 ④ 나라가 망한 데서 오는 애상감이 드러나 있다.

4 나. 시조의 작가는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형식을 내면화하고, 정해진 규칙에 내용만 담으면 되었다. 라. <보기 1>에 따르면 정해진 시조의 형식이 학습에 용이하다고 하였으므로, 작가들은 내용의 창안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조 형식의 정형성이 오히려 표현에 자유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가. 시조의 주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시조의 형식은 이미 고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5 (가)의 '나'는 죽음으로 인해 누이와 이별한 상황이다. 반면 ⑤는 별을 다 세지 못하는 이유를 나열한 것으로, 죽음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은 '나(자식)의 죽음, ② 어린 딸의 죽음, ③ 입의 죽음, ④ 누나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6 ㉠은 이승(이 세상)으로, 누이가 아닌 화자가 있는 곳이다.

오답 해설 ② 간다는 말도 못다 일했다는 것은 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음을 뜻하는 것이다. ③ 이른 바람은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④ 입이 떨어졌다는 것은 누이가 죽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한 가지'는 화자와 누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7 (나)에서 '어론 남'이 돌아올 수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의 '밤'은 화자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고, ㉡의 '밤'은 입과 즐겁게 지낼 시간이다. ③ ㉠에는 ㉡에 대응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구부구부 떠러라'가 들어가야 한다. ④ ㉠과 ㉡에서는 '밤'을 이별 아래 넣었다가 편다고 했으므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었다. ⑤ 화자는 입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지속하고 싶어서 동짓달의 밤을 질러 어론 남이 오시는 밤에 불인다고 표현한 것이다.

8 (나)와 <보기>는 부재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시조이다. 황진이가 살던 조선 시대에 가부장제의 모순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두 작품 모두 그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여인의 면모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나)와 <보기> 모두 주로 순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다. ② (나)는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보기>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입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나)와 <보기>의 작가인 황진이는 조선 시대의 기녀였으며, 진솔하게 애정 문제를 표현하고 있다. ⑤ (나)와 <보기> 모두 시조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10 (나)에는 '서리서리', '구뒹구뒹'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고, <보기>에는 '똑똑'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나)와 <보기> 모두 시선의 이동에 의한 시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는 처음과 끝의 구절을 반복하는 수미상관은 사용되지 않았다. <보기>에는 변형된 수미상관이 사용되었다. ④ (나)와 <보기> 모두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보기>에만 경어체가 사용되었다.

13 모범 답안

윗	글	의	화	자	는	입	을	그	리	워	하	며	입	이	
들	아	와	함	께	할	시	간	을	간	질	히	기	다	리	고
있	는	데	반	해	,	<	보	기	>	의	화	자	는	오	
지	않	는	임	에	대	한	원	망	을	드	러	내	며		
입	을	야	속	하	게	여	기	고	있	다	.				

(1) 우리의 노래

2 관동별곡 정철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13~123쪽

- 01 (1) ○ (2) ○ (3) ○ (4) ○ (5) ○ (6) × (7) ○ (8) ×
- 02 ③ 03 ② 04 회양(淮陽), 계이고.
- 05 (1) ○ (2) ○ (3) × (4) ○ (5) ○ (6) × 06 ③ 07 ④ 08 ②
- 09 (1) ○ (2) ○ (3) ○ (4) ○ (5) × 10 ④ 11 ④ 12 ②
- 13 (1) ○ (2) ○ (3) × (4) × (5) ○ 14 ④ 15 ③ 16 ⑤
- 17 (1) ○ (2) ○ (3) ○ (4) × (5) ○ (6) ○ 18 ③ 19 ⑤ 20 ③
- 21 (1) ○ (2) ○ (3) ○ (4) ○ (5) ○ (6) ×
- 22 [A] - ㉞, ㉟, ㊱, ㊲ / [B] - ㉠, ㉡, ㉢, ㉣, ㉤ 23 ① 24 명월

- 01 (6) 화자는 북관정에 올라 삼각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관정에서 삼각산 제일봉이 보일 것 같으며 임금을 떠올리고 있다. (8) 화자는 만폭동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고 눈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 02 <보기>는 <관동별곡>의 운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가사의 운율적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③이 적절하다.
- 03 1에서 화자는 산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 받아 가는 중이며, 기쁜 마음은 표현되어 있지만 산행에 대한 즐거움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말을 타고 가다가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 탄 것이므로 오랫동안 걸었다고 할 수도 없다.
- 04 화자는 '회양'이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었던 곳의 지명과 같다는 점을 떠올리며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05 (3) '늘거든 썩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봉우리들이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섯거든 솟지 말거나.)', '높을시고 망고디(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峰)이(늘기도 하구나 망고대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에서 산봉우리의 모습을 의인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문답법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6) 화자는 비로봉에 올

라간 것이 아니라 비로봉을 바라보며 공자의 호연지기를 흠모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등산·태산같이 높은 비로봉에 올라가더라도 공자의 정신적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며 탄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자의 경지를 뛰어넘었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06 설의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임금의 공덕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부용(芙蓉)을 고치는 듯 백옥(白玉)을 못짓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릿는 듯.' 등에서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헌스토 헌스홀샤.', '유정(有情)도 유정(有情)홀샤.'에서 영탄을 통해 화자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④ '높을시고 망고디(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峰)'에서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다. ⑤ '높을시고 망고디(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峰)'에서 의인법을 통해 화자 자신의 높은 의지와 고고한 절개를 은근히 나타내고 있다.

07 화자는 개심대에서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개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보며 그 정상에 등반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人傑)을 돈돌고자.'에서 나라를 구할 인재가 없음을 걱정하고 있다. ③ '어와 더 디워롤 어이후면 알 거이고.'에서 공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⑤ 굽힐 줄 모르는 강직한 자세로 우뚝 솟은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을 보고, 임금에게 간언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강직한 신하를 떠올리면서 화자 스스로 절개를 다짐하고 있다.

08 ①은 망고대와 혈망봉의 높은 기개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의지와 절개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망고대와 혈망봉이 가장 높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하면 비로봉이 가장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9 (5) 10에서 화자가 금강산에서 바다로 장소를 이동할 때 '녕농(玲瓏) 벽계(碧溪)와 수성(數聲) 데도(啼鳥)는 니별(離別)을 원(怨)하는 듯(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아름다운 새소리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10 금강산 여정 부분에서는 위정자로서의 모습과 생각이 드러나고 있고, 바다에서는 개인적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화자의 주관이 투영된 자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1 <보기>의 '새'는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이 글에서도 금강산을 떠나기 아쉬운 화자의 심정을 '벽계(시냇물)'와 '데도(새)'에 감정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다.

12 '명사(鳴沙)길 나근 물이 취선(醉仙)을 빙기 시러.'에서는 화자가 도선적 풍류에 젖어 말을 타고 명사길 바닷가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취선은 풍경에 도취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백구(白鷗)야 늑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논.'은 백구와 벗하면서 자연 속에 노닐고자 하는 풍류적, 자연 친화적 정서를 표현하며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3 (3) 13에서 해가 뜰 때 상서로운 구름이 몽게몽게 피어나는 듯했고, 여섯 용이 하늘을 떠받쳐 괴는 듯하다고 하였다. (4) 경포에서 '십(十) 리(里) 빙환(氷纒)을 다리고 고티 다려,'라고 한 것은 경포 호수가 그만큼 맑고 수면이 잔잔함을 비유한 것이다.

14 일출을 묘사한 부분에서 '해'는 임금을, 해를 떠받치고 있는 '녹농'은 충성스런 신하, 즉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또한 해가 밝게

비치는 것은 임금의 총명과 예지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라를 근심하는 충신인 화자는 후시라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의 근처에 머물러 광명을 가릴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를 가리는 '넒구름'은 임금의 총명과 예지를 흐리게 하는 간신배를 의미한다.

- 15 ㉠은 해가 공중에 치솟아 뜨니 그 밝은 빛이 가느다란 터럭을 헤아릴 정도로 밝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다.
- 16 이 글의 흐름을 정리하면, 먼저 의상대에 올라 '일출(日出)을 보리라'라며 일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양운(祥雲)이 ~ 헤리리다.'에서는 일출의 장관이 나타나 있다. 또한 '시선(詩仙)은 ~ 홀서이고.'에서는 이백이 남긴 시구를 생각하며 일출에 경탄하며 감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대 - 장관 - 감상'의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7 (4) 화자는 망양정에서 고래를 본 것이 아니라 파도가 출렁거리며 부서지는 모습을 고래에 비유하여 묘사한 것이다.
- 18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계속 즐기고 싶지만 관찰사로서의 책임이라는 현실의 여건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여기서 '객수(客愁)'는 자연을 즐기고 싶어 하는 화자 본연의 욕망이고, '왕명(王程)이 유한(有限)하고'는 관찰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뜻한다.
- 19 [A] 부분은 '밝이 됨. → 밝은 달이 뜨기를 기다림. → 상서로운 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짐. → 연꽃처럼 희고 아름다운 달이 나타남.'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로 볼 수 있다.
- 20 화자는 망양정의 달밤의 경치(임금의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백성들)에게 보이고 싶다며 목민관으로서의 애민 정신과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21 (6) 화자가 꿈속에서 신선과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구만(九萬) 리(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리리다.'라며 신선이 된 기분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다고 표현했을 뿐 실제 하늘을 난 것은 아니다.
- 23 ㉠은 '이 술을 가져다가 온 천하에 고루 나누어, 백성을 취하게 하고 그때서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꾸나.'라는 의미로, 취중에도 좋은 것이 있다면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화자의 애민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 24 '명월'은 '밝은 달'로서 여기서는 '임금의 은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에는 임금의 은총이 세상에 고루 퍼져 있는 모습을 보고 화자의 갈등이 해결된 평정의 상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24쪽

- 05 임금을 알현한 뒤, 하직하고 물러났다.
- 07 비로봉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을 뿐, 직접 비로봉에 오른 것은 아니다.
- 08 자신을 서호의 옛 주인이라 칭한 것은 신선 사상, 도교적 사상을 드러낸 것이다.

- 12 화자의 외로움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14 셋별이 솟아오를 때까지 곳곳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 15 '명월'은 임금(의 은혜)을 나타내는 말이다.

본문 126~131쪽

소단원 기본 평가

1 ④	2 ⑤	3 ③	4 ①	5 ②
6 ④	7 (1) 고신거국 (2) 임금을 떠난 외로운 신하			
8 망고대, 혈망봉	9 ③	10 ①	11 ②	
12 ①	13 ⑤	14 나도	15 [A]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 부분으로, 관찰사로서의 책임과 자연을 즐기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구 사이의 갈등을 '왕명'과 '객수'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16 해설 참고 17 임금의 은혜				

- 1 관동 지역의 부패한 관리들을 잡아 임금에게 아뢰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강호(江湖)에 병(病)이 깊퍼 득남(竹林)의 누엇더니.'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 은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관동(關東) 팔백(八百) 리(里)에 방면(方面)을 맞디시니.'에서 임금의 임명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와 성령(聖恩)이야 가디록 망국(罔極)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영동(營中)이 무수(無事)하고(감영 안이 무사하고)'로 보아 화자가 관내를 둘러본 뒤 금강산 유람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급당유(汲長孺) 풍치(風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에서 선정의에 포부가 드러나 있다.
- 2 금강유의 고사를 인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선정의에 포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이를 통해 화자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여정에 따른 견문을 쓴 기행 가사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은(銀) ㄱ톤 무지계 옥(玉) ㄱ톤 룡(龍)의 초리'에서 작유와 은유를 사용하여 폭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연추문(延秋門) 드리드라 경회(慶會) 남문(南門) 바라보며, / 하직(下直)고 물너나니'에서 생략과 비약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④ '부용(芙蓉)을 고갯논 듯 ~ 북극(北極)을 괴갯논 듯.'에서 작유와 대구를 통해 봉우리들의 모습을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다.
- 3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겉과 속이 다름.'을 뜻하며 (가), (나)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천석고황(泉石膏肓)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性癖)을' 뜻하는 말로, '강호(江湖)에 병(病)이 깊퍼 득남(竹林)의 누엇더니.'와 관련 있는 말이다. ② 우국지정(憂國之情)은 '나라일을 근심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사.'와 관련 있는 말이다. ④ 연군지정(戀君之情)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峰)이 흐마면 보리리다.'와 관련 있는 말이다. ⑤ 맥수지탄(麥秀之嘆)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뜻하는 말로, '궁왕(弓王) 대궐(大闕) 터히 오작(烏鵲)이 지지피니, / 천고(千古) 흥망(興亡)을 아나도 몰으는다.'와 관련 있는 말이다.
- 4 ㉠은 화자가 관찰사에 임명되기 전에 은거하던 자연을 가리킨다. ㉡~㉣는 관찰사에 임명된 뒤 여행한 여정에 해당하는 장소들이다.
- 5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리다.'는 장엄하게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을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눈'은 폭포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비유하는 말이다. 따라서 폭포 주변에 흰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銀) 7툰 무지개 ~ 보니는 눈이로다.'에서 웅장한 기세로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라)에서 '호의현상(縞衣玄裳)'은 '검은 치마와 흰 저고리'라는 뜻으로, 두루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라는 구절을 통해 학이 날아오르며 노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④ '진혈담(眞歇臺) 고터 올라 안즌 마리.'에서 화자가 진혈대에 올라 앉아 금강산을 감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부용(芙蓉)을 고짓는 듯 ~ 북극(北極)을 괴릿는 듯.'에서 크고 작은 봉우리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6 산봉우리들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묘사이므로 '날 거든 뛰지 말든가 섰거든 솟지 말든가'가 가장 적절하다. 이 부분은 송순의 <면양정가> 중 '넙쳐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 마나' (③)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맑고도 깨끗한 산봉우리의 모습을 참신한 느낌의 운율에 실어 묘사한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②와 ⑤는 <면양정가>에 나오는 구절로, 각각 '없었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가',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진 듯 이어진 듯'의 의미이다.

8 망고대와 혈망봉은 임금을 상징하는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 하며, 천만 겁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대상이다. 이는 지조와 절개를 지닌 강직한 신하의 모습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모습이다.

9 이 글의 갈래는 가사 문학으로, 가사는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음보율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이다. 또한 시조의 종장과 같은 음수율로 끝나는 가사(3·5·4·3)를 정격 가사라 하는데, '명월(明月)이 천산만파(千山萬落)의 아니 비췌 디 업다.'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정격 가사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조선 시대 백성들에 대한 애민 정신과 선정의 포부를 다짐하고 있을 뿐, 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고려 가요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4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④ 이 글이 양반 가사인 것은 맞지만 군담 영웅 소설의 효시가 되는 작품은 아니다.

10 <보기>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태백산(太白山) 그림자를 동해(東海)로 다마 가니, /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명(木覓)의 다히고져.'에서 아름다운 태백산의 풍경을 담은 오십천이 동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임금이 계신 곳으로 향하게 하고 싶다는 표현을 통해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는 바다에서의 여정이 드러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잠결의 니러 인지'로 보아 공간적 배경이 방 안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단표누항의 삶을 꿈꾸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이 글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보기>에서도 '그리움'만 드러나 있을 뿐 원망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

11 ① '은산'은 높이 솟은 파도의 물결을 은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12 ㉠ '절효정문(節孝旌門)'은 '충신과 효자, 열녀를 찬양하기 위해 세운 붉은 문'으로 유교적 사상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② '뉴하주(流露酒)'는 신선이 마시는 술, ③ '진선(眞仙)'은 신선, ④ '황명경(黃庭經)'은 도가(道家)의 경문, ⑤ '학(鶴)'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동물로서 모두 도교적인 신선 사상과 관련 있는 소재이다.

13 ①~④는 화자의 꿈에 나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⑤ '날'은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16 모범 답안

억 만 백 성 을 다 취 하 계 만 들 겠 다 는 것
은 목 민 관 으 로 서 선 정 의 포 부 와 애 민
사 상 을 드 러 낸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생
각 이 담 긴 표 현 은 (라) 의 ' 이 리 즐
은 세 계 를 남 에 게 다 보 이 고 싶 다 . '
라 는 부 분 이 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32~137쪽

1 ④ 2 ④ 3 ③ 4 ⑤

5 농농 벽계와 수성 데오는 니발을 원하는 듯.

6 선학이 화자를 보고 옛날에 자기가 모시던 주인(임포)이라고 생각해서 반가워 맞이하는 듯하다는 말로, 화자가 임포처럼 신선이 된 것 같다는 뜻이다.

7 ㉠: 임금, ㉡: 간신배 8 ① 9 ① 10 ①

11 봉우리의 기운을 흠어 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한다. 12 해설 참고

1 화자는 '명월(明月)을 기다리'며 '계명성(啓明星) 듯도록 곳초 안자' 있다가 달을 본 것이므로 우연히 달을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화자가 '금강담(金剛臺) 민 우층(層)의 선학(仙鶴)'을 볼 정도로 산에 높이 올라가 금강산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화자는 '남여완보(籃輿緩步)하야 산영루(山映樓)에 올라가고 있다. ③ (라)에서 화자는 '의상대(義相臺)에 올라가 일출을 보면서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라고 하며 간신배가 임금 근처에 머물까 염려하는 우국지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뉴하주(流露酒)'는 화자가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어로, 그가 신선 세계를 동경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2 폭포가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물보라를 눈 같다며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③ 화자가 원경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레와 같다고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은 7툰, 옥 7툰'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폭포를 '무지개, 룡의 초리'에 비유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3 (나)에서는 망고대, 혈망봉을 통해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③은 이방원이 고려 충신 정몽주에게 새나라 조선을 함께 건국하자고 회유하기 위해 지은 것이므로 (나)의 화자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새 왕조에 협력하라는 회유를 거절한 작가가 고려 왕조에 대한 굳은 절개를 대나무에 빗대어 노래한 작품이다. ② 사육신의 한 사람인 작가가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죽게 되었을 때, 단종에 대한 충정을 소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④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맹년의 절의가(絶義歌)로, 세상은 세조의 무리로 가득 찼지만, 절개 높은 신하는 양광명월과 같이 언제나 빛남을 노래한 작품이다. ⑤ 윤선도의 <오우가> 중 제4수로,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내용이므로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4 ㉡은 '해가 하늘에 뜨니 가는 터럭도 헤아릴 만큼 밝다.'라는 뜻으로, 과장된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청각과 시각적 심상은 사용되고 있지만 공감각적 심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직유법을 사용하여 산봉우리의 수려하며 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산을 떠나 동해로 가는 감회를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④ 감정 이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8 문학 작품 감상 방법 가운데 하나인 ‘반영론적 관점’이란 문학 작품은 작품이 쓰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므로 이러한 시대 현실에 비추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이 글에는 임금을 향한 연군지정의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①과 같이 작품이 쓰인 당시 집권층이었던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주요 덕목인 유교적인 층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③ 작품 속 요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내재적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이다. ④ 독자에게 주는 교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이다. ⑤ 작가의 생각을 기준으로 한 표현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다.

9 ‘남여(輿緩)’는 벼슬아치가 타던 가마를 뜻하며, ‘정기(旌旗)’는 관찰사의 행렬을 상징하는 깃발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총석명(叢石亭)은 관동 팔경의 하나로 강원도 통천군 고저(庫底)에 있는 정자의 이름이고, ‘귀부(鬼斧)’는 조화를 부리는 신비한 연장을 뜻하는 말로 화자의 신분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다.

10 ‘더 디위’는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를 뜻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를 뜻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와 의미가 통한다.

오답 해설 ② 꺾목상대(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르는 말. ③ 안하무인(眼下無人):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④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⑤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실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12 **모범 답안**

의미	하	고	삼	일	우	는	흘	죽	한	비	라
는	뜻	으	로	여	기	서	는	백	성	에	게
해	택	을	의	미	한	다	.	이	를	통	해
에	대	한	화	자	의	애	민	정	신	을	엇
있	다	.									수

(2) **우리의 이야기**

유자소전_이문규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41~147쪽

- 01 (1) ○ (2) ○ (3) × (4) ○ (5) ○ (6) ○ 02 ④ 03 ③
- 04 풀밭에서 뚜렷하고 쭈뼛에서 우뚝하였다.
- 05 (1) ○ (2) ○ (3) ○ (4) ○ (5) ○ (6) × 06 ③ 07 ⑤ 08 ③
- 09 (1) ○ (2) ○ (3) ○ (4) × (5) ○ (6) ○ 10 ⑤ 11 ④
- 12 물질 만능 13 (1) ○ (2) × (3) ○ (4) ○ (5) ○ 14 ⑤
- 15 ④ 16 인간적, 위선적인

01 (3) 1의 유자는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로 보아, 겉으로는 평범한 인물로 볼 수 있다.

02 1에 ‘한 친구가 있었다. /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는 서술자와 중심 인물인 유자가 서로 친구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03 이 글은 구체적인 연도와 지명을 밝히면서 현실에 존재할 만한 인물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그 인물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기>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04 서술자는 유자의 생애와 성품을 평가하며 ‘풀밭에서 뚜렷하고 쭈뼛에서 우뚝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비슷한 풀들, 남작한 쭈뼛 사이에서 돋보였다는 뜻으로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인물이라는 의미이다.

05 (6) 9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자기주장에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 논리로써 무장이 되어 있는 경우였다.’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는 유자가 그날따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로 보아 유자의 특성상 경험을 통해 얻은 근거로 주장할 것이라 생각한 것일 뿐 그가 철학자의 논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06 이 부분에는 풍자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으며, 비극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07 ‘나는 고향을 떠난 이후 민물고기 요리를 먹지 않았고, 수컷구멍 냄새 때문에 민물고기 요리를 그리워하지도 않았다. 민물고기 요리를 그리워한 것은 유자이다.

08 ‘하소연’은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막한 사정 따위를 말할.’의 의미이다. ‘남의 흠을 들추어 헐뜯음.’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는 ‘협담’이 있다.

09 (4) 유자는 충수 집의 비단잉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흘기눈을 뜨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10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으며, 전지적 시점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나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주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이 글은 유자의 말에서 언어유희를 통한 해학과 풍자가 드러나며 충수에 대해 비교는 말투를 사용하여 충수의 허영심을 풍자하고 있다.

11 유자는 비단잉어가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비싼 몸값을 가진 것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흘기눈을 뜬 것이었다.

13 (2) 유자는 비단잉어에 대해 추궁하는 충수에게 사투리, 비속어, 우스꽝스러운 말로 비아냥거리며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치스럽고 위선적인 충수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4 이 글에서는 비단잉어 때문에 대립하게 된 충수와 유자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충수는 허영심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을 대변하는 인물로, 사람의 도리를 중시하는 유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15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풍자는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해학은 익살스러움을 유발하는 문학 기법이다. 이러한 <보기>의 내용에 따라 이 글을 감상한 것으로는 ④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② 이 글에서 유자는 풍자의 대상이 아니다. ③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충수의 태도를 비꼬고 공격하는 것은 해학이 아니라 풍자에 해당한다. ⑤

총수의 언행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보기>의 설명 중 풍자라고 할 수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49쪽

- 02 작품 안의 서술자 '나'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05 이 글의 중심 갈등은 비단잉어를 둘러싼 유자와 총수의 외적 갈등이다.
- 08 이 글의 주인공은 유자이며, '나'는 그를 관찰하고 그에 대해 서술하는 서술자이다.
- 09 '나는 유자가 심성이 밝고 끈은 성품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기에 그를 유자라고 높여 부르는 것이다.
- 12 유자는 총수가 비단잉어를 구입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14 유자는 위선자인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하루바삐 떠나고 싶어 한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50~155쪽

1 ②	2 ④	3 ⑤	4 ⑤	5 ③
6 유재필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한 올바른 행동이나道理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7 ②	8 ⑤		
9 ⑤	10 ②	11 ①	12 ③	13 ④
14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 1 이 글은 '나'가 친구인 유재필이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 그의 삶에 대해 논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유재필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대화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③ 중심인물에 대한 소개가 제시된 부분으로,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부각하거나 사건의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④ 서술의 초점이 한 인물에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인물의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⑤ 회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가치관의 혼란과도 관련이 없다.
- 2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등과 같이 중심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직접적이고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전달하고 있다.
- 3 ㉠은 유재필(유자)을 가리키는 말로, 그는 '자발머리없이(행동이 가볍고 참용성 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를 미워했다고 하였으므로 ㉡는 유재필이 싫어하는 인간 유형에 해당한다.
- 4 ㉠은 분수없이 남을 제끼거나 괴롭히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했다는 점과 관련 있다. 따라서 ㉠은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미워하는 태도를 나타낸 말이라 할 수 있다.
- 5 ㉠은 '제상의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지사(志士)나 어린 사람의 마음씨를 이르는 말'인 선우후락(先憂後樂)의 태도를 설명한 구절이다.

오답 해설 ① 조삼모사(朝三暮四):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②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④ 멸사봉공(滅私奉公):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씀. ⑤ 절차탁마(切磋琢磨):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 6 <보기>를 보면 '전(傳)' 양식은 일반인 가운데서도 미덕이나 재예(才藝)가 있거나 선행을 하여 후세에 전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 서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에서 유재필을 소재로 전(傳) 양식을 도입해 쓴 것은 그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동 등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보기>는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느냐는 측면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는 이 글의 등장인물인 총수를 통해 현대인에게 일침을 가한다고 함으로써 독자에게 주는 효용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므로 <보기>의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작품의 표현상 특징, 즉 작품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하였으므로 내재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다. ③ 현대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 준다고 하였으므로 사회에 대한 반영에 중점을 둔 반영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다. ④ 서술 방법 즉 작품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한 내재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지만,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므로 서술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⑤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하였으므로 표현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지만, 유재필은 실제의 인물이 아니므로 서술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 8 해학적 인물인 유자가,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는 총수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전통극의 한 형식인 가면극의 전통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반어적인 상황 설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중심인물인 유자가 제자기인형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유자는 부정적 인물인 총수에 대해 나름대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인물로, 현실에 맞서지 못하고 체념하는 인물은 아니다. ④ 이 글에서는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나타날 뿐, 권선징악적인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 9 총수의 위선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해심이 많은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다.
- 10 (가)에서 유자는 '뿔어낸메네토프(베토벤)', '차에코풀구쉬어(차이콥스키)'와 같이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 <보기>의 말뚝이도 '개갈양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과 같이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보기> 모두 반어법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 비단잉어들이 '곡을 틀어 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옳'다고 표현한 것은 상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기>에서는 상황에 대한 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보기>에서는 말뚝이가 양반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에서는 인물에 대한 희화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보기>에서는 금기시되는 소재인 양반을 소재로 웃음을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금기시되는 소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1 유자는 사람보다도 비단잉어를 더 중시하는 총수의 물질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12 총수는 비단잉어의 죽음에 대한 화풀이를 유자에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여움을 애매한 다른 데로 옮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이 총수의 이러한 태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다시 바로잡거나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운수가 나쁜 사람은 보통 사람에게는 생기자도 없는 나쁜 일까지 생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제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을 비꼬는 말. 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들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㉔에서 서술자는 사람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총수의 비인간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비꼬는 어투를 통해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4 충정도 방언과 비속어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56~163쪽

1 ㉓	2 ㉔	3 ㉔	4 ㉔	5 ㉓
6 ㉓	7 ㉔	8 ㉒	9 ㉑	10 ㉓
11 ㉒	12 ㉒	13 시멘트의 독성		
14 벨어넨메네도(벤토벤), 차에고콜구심어(차이콥스키) / 르에 해당한다.				
15 해설 참고				

1 이 글에서 유자라는 인물은 서술자인 '나'가 알고 있는 인물로, 나름대로 삶의 주관관을 가진 인물이다. 총수의 기사로 일하면서도 총수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돈이나 출세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켜 나가려 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혼탁한 우리 시대에 드물게 눈에 띄는 기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자는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기릴 만한 인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일전(逸傳)'의 성격을 띤다.

2 서술자 '나'는 주로 유자의 말과 행동을 옮기면서 그의 생각과 견해를 드러내는 관찰자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경외감(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방언과 비속어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현실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② 유자의 비꼬는 듯한 어투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비판하고 있다. ⑤ 해학과 풍자를 통해 허식에 사로잡힌 총수를 비판하고 있다.

3 이 글은 친숙하면서도 반발을 갖기 많은 인물(유자)을 등장시켜, 풍자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웃음을 주는 가운데 사치와 이기심이 만연한 경박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㉔). 아울러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크이 들었던 개비네유.", "내가 독종이면 저는 말종이다……" 등에서 드러나듯이, 주인공 유자의 비꼬거나 비웃는 말투를 통해 총수의 사치심과 이기심을 꼬집으면서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㉑). 또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일화를 배치하는 삽화적 구성을 보인다(㉑).

오답 해설 주인공 유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나타나므로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며(㉑),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뺐다. ~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과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㉑). 장면의 빈번한 전환도 드러나지 않는다(㉑).

4 유자는 총수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일부러 탄정을 피우며 비단잉어들이 감기에 걸려 죽었다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정말로 비단잉어들이 감기에 걸려 죽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⑤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를 통해 총수가 유자의 말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A]는 서술자인 '나'와 중심인물인 유자 사이의 일화를 제시하기 위한 도입 부분으로, 이 글의 핵심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 이 글의 핵심 갈등은 총수와 유자 사이의 갈등이다.

오답 해설 ④ 서술자 '나'와 유자의 직업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6 총수의 어제 질책은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이 사람이."를 말하는 것인데, 유자가 그 질책에 대해 분풀이를 하려는 의도로 ㉑과 같이 말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질 만큼 속이 웅색한 편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별 의도 없이 말한 것일 뿐이다. 뒤에 이어지는 '총수의 성깔을 닷들이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등을 달은 거였다.'와 관련지어 생각해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 '나'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근거를 바탕으로 유자의 성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읊는'에서 비단잉어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를 '땀따라'라고 표현한 데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난다. ④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달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7 ㉑에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㉑에서 '노(老) + 생원님'의 발음과 유사한 '노새원님'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유사 음운의 반복에 의한 언어유희, ②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 ③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⑤ 동음이의어인 '서방(書房)'과 '서방(西方)'을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8 유자가 총수의 운전수라는 남들이 눈독을 들이는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 하게 된 것은, 아랫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질을 우선시하는 그의 참모습을 알아 버렸기 때문이다. 총수가 물고기에 대해 갖는 애정은 그의 인간됨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치이며, ㉑는 유자의 인물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9 <보기>에서는 부정적 인물인 윤직원 영감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부정적 인물인 총수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는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달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등에서, <보기>에서는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립니다. 후히 생각해 달란 뜻이 지요.' 등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도 서술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유자와 총수의 대화를 통해, <보기>에서는 윤직원과 인력거꾼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추측하도록 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사람보다 비단잉어를 중시하는 총수의 부정적인 면을, <보기>에서는 인력거를 이용하고도 돈을 내지 않으려는 윤직원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유자의 사투리를 통해, <보기>에서는 윤직원의 사투리를 통해 사실감과 현장감을 살리면서 토속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10 ㉑의 '틀거지'는 외적인 '틀', 즉 '겉모습', '외양'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틀거지만 그럴듯하다는 말은 '겉모습은 번드르르하지만 실제 인간됨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③ '부쩌지하다'는 '부접(附接)하다'의 방언으로 '① 나에게 의지하다. ② 가까이 접근하다.'의 의미이며 여기서는 ㉑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1 유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일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 세상에 적응하려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자신의 단점을 이겨 내려는 의지와도 관련이 없다.

12 작가가 풍자하고 있는 대상은 유자가 아니라 총수이다.

15 **오답 답안**

대	상	에	대	비	태	도	를
드	러	내	고	있	다.		

- 01 ㉔ 02 ㉑ 03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 04 ㉒ 05 ㉒ 06 ㉑ 07 ㉑ 08 ㉔
- 09 ㉓ 10 ㉒ 11 ㉒ 12 해설 참고
- 13 ㉔ 14 ㉓ 15 ㉔

01 '구두 닦는 사람이 닦은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나며, 창문 닦는 사람이 닦은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나며,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한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이것들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ㄱ. 구두 닦는 사람이나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이다. ㄴ. 마지막 5연을 제외하고 각 연마다 '~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 끝을 보면', '~에서도 빛이 난다', '~만이 ~은 아니다' 등을 배치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ㄴ. '검은 것, 비누 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이 각각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 보이는 빛'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나 그렇다고 '검은 것, 비누 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 등이 부정적인 시어이고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 보이는 빛' 등이 긍정적인 시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사소해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㉑~㉔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다(㉑). 그들은 닦는 행위를 통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빛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㉒).

오답 해설 ㄴ.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들은 맞지만, 화자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ㄷ. ㉑~㉔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외면하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며 고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05 이 글에서는 '구두, 창문, 길'을 닦는 행위가 나타나 있으며, <보기>에서는 '유리(창)을 닦는 행위가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㉑ 이 글과 <보기> 모두 대상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지 않다. ㉒ 이 글에는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으나 <보기>에는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㉓ 이 글은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한 삶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지만, <보기>에는 대상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㉔ 이 글은 '~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만이 ~은 아니다' 등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수미상관의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06 이 글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ㄱ. '나'의 시선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즉 어머니가 수술 후 겪게 되는 환각 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 ㄷ.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 밥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에서 보는 것처럼 서술자 '나'는 자신의 심리를 독백체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ㄴ. 이 장면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환각 상태인 어머니가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아들을 지켜 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면이다. 따라서 장면의 빠른 전환은 없으며 사건을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 ㄴ. 이 글은 서술자인 '나'가 직접 작품 속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으므로 작품 밖의 서술자라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07 '나'는 '그'가 저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나'는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답 해설 ㉒ 어머니는 환각 상태에서 아들을 찾아 숨기기 위해서 사방을 손으로 더듬고 있다. ㉓ 절체절명이란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어머니에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는 아들이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는 것이다. ㉔ 어머니에게 몹쓸 일은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이다. 그런데 환각 상태에서 현재 그 일을 똑같이 또 한 번 겪고 있으니 어머니는 지금 현재 몹쓸 일을 두 번이나 당하고 있는 것이다. ㉔ 어머니는 투병의 와중에도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며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한이 되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ㄷ. 군관을 '선생님, 나으리' 등으로 높여 부름으로써 비굴하더라도 아들을 지키려는 절박한 심리가 담겨 있다. 그리고 군관을 '이노움'이라고 비속하게 부르는 것에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군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담겨 있다.

오답 해설 ㄱ. 어머니가 인민군 군관을 높여 부르며 입가에 비굴한 웃음을 띠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은 어머니가 아니라 '나'이다.

09 '말뚝'이란 땅에 두드려 박는 기둥이나 몽둥이라는 뜻으로 한번 땅에 박히면 빼내기가 어렵다. 이를 통해 '엄마의 말뚝'은 삶의 티끌(㉑)이나,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한(㉒), 부정적 대상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㉓)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ㄴ. 홀로 자식들을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의지와 집념 등을 드러낸다.

10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이 죽거든 고향이 보이는 강화도의 바닷가에서 자신을 화장한 뱃가루를 뿌려 달라고 했으며 이 말을 들은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어머니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㉑ 어머니는 유언으로, 자신이 죽거든 오빠의 뱃가루를 뿌린 것처럼 '나'에게 자신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있다. ㉒ 간혹 문병을 와 주는 친척이나 친구들은 어머니가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는지 심하게 고개를 젓거나 정례 절차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 있었다. ㉓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으나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하여 개공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오빠의 뼈를 뿌렸다. ㉔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인 것처럼, 젊어 과부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병'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몸에 생긴 신체적 병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에 생긴 상처이다. <보기>의 ㉑는 우리 사회 전체의 병이라고 했으므로 이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 전체의 정신적 상처를 의미한다.

12 오답 답안

㉑	은	고	항	이	보	이
는	강	화	도	의	바	닷
에	서	어	머	니	의	뱃
루	를	바	람	에	날	리
것	이	다	.	이	는	분
이	가	저	온	비	극	과
정	면	으	로	맞	서	려
의	지	의	표	현	으	로
이	글	은	우	리	민	족
의	한	이	된	전	쟁	의
상	처	와	분	단	의	비
이	라	는	문	제	를	다
고	있	다	.			

13 필자는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자신이 경험한 것까지가 바로 자신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며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나 지금도 책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을 더 많이 해 보라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4 ㄱ. 필자는 고등학교 때 읽은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며 책은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ㄴ, ㄷ. 필자는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얻은 것도 책이었으며, 또 천체 사진 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도 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ㄷ.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나 필자는 책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책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15 B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특별한 책을 선별해서 읽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 해설 ① B는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種)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 준다고 말하고 있다. ③ B는 자신이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1학기의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박지원의 책 때문이라고 하였다. ④ A는 고등학생 때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며,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게 해 준 계기가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문 173~177쪽

2회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01 ㉓	02 ㉠은 누이이고, ㉡은 화자이다.	03 ①
04 이른 바람	05 ④	06 ㉓
09 ⑤	10 ㉓	11 ㉓
14 ㉓	15 유자	12 ㉡
		13 해설 참고

01 누이와의 재회를 바라며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슬픔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누이의 죽음이 창작 동기가 되므로 역사적 사건이 아닌 개인적 사건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03 '미타찰'은 저승을 뜻하므로 ㉠~㉢ 중 죽음이나 저승과 반대되는 시어를 찾아야 한다. ㉠ '예'는 '여기', 즉 이승을 의미한다.

05 (가)와 (나)는 모두 평시조로 유교적 이념, 자연 친화적인 삶, 애정 세계를 다룬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특성을 띠는 것은 사실시조이다.

06 감정 이입도 사용되지 않았고 사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로 보아 즉흥적인 선택이 아닌 십 년 동안 준비한 살임을 알 수 있다. ② '초려 삼간(草廬三間)'은 '방 세 칸 초가집'으로 소박한 삶을 나타낸다. ③ 중장에서 '돌', '청풍(淸風)'을 화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07 (가)는 자연의 소박한 삶 속에서도 즐거움을 추구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있는 한자 성어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다.

오답 해설 ② 명약관화(明若觀火):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 ③ 목불식정(目不識丁):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8 (나)의 화자는 입이 없는 동짓달 기나긴 밤의 허리를 베어 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입이 없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09 (나)에서는 입이 부재한 시간과 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각각 언급하고 있을 뿐, 시간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보기> 역시 화자가 이승과 저승을 언급하고 있을 뿐, 공간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 '강호(江湖)에 병(病)이 김퍼'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작가가 실제 병 때문에 자연에 은거한 것은 아니다.

11 ㉡은 '화천 시냇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라는 뜻이다. '풍악'은 '금강산'의 다른 이름으로, ㉡의 바로 앞에 '삼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을날의 풍경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 같은 형식의 구로 대응되어 있으므로 대구법, '~ 같은'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므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폭포의 모습을 '무지개', '룡(龍)의 초리'라고 하였으므로 은유법도 사용되었다.

13 모범 답안

이	글	에	서	신	은	
강	직	하	고	지	조	있
신	하	의	이	미	지	로
작	가	는	산	의	모	습
보	며	위	정	자	로	서
책	임	의	식	과	유	교
총	의	사	상	을	드	러
고	있	다	.		반	면
다	는	도	교	적	신	선
사	상	과	맞	물	려	즐
는	대	상	으	로	서	의
연	의	이	미	지	를	가
고	있	으	며	,	작	가
바	다	에	서	개	인	적
인	간	으	로	서	의	본
표	출	하	고	있	다	.

14 유자는 '남을 패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선블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 '어딘지 뗏뗏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하였다. 무지(無知)를 감추려 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5 이 글에서 '나'는 스스로를 '유자'라고 부르는 유재필을 '유자'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자(子)가 '높임을 받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임을 고려하였을 때, '나가 존경과 공경의 의미로 그를 '유자(俞子)라고 부름을 알 수 있다.

6~7단원 통합 최종 점검 모의고사

본문 178~190쪽

01 ㉓	02 ㉑	03 ㉕	04 ㉔	05 ㉕
06 ㉑	07 ㉔	08 ㉓	09 ㉓	
10 한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으니까 한복을 만드는 법, 한복 디자인 등 한복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도록 하렴.	11 ㉒			
12 ㉔	13 ㉑	14 ㉑	15 ㉔	16 ㉒
17 ㉒	18 ㉑	19 ㉑: 긍정적, ㉒: 연장	20 ㉓	
21 ㉒	22 ㉓	23 ㉔	24 ㉒	25 ㉕

01 '맑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쓰레기, 검은 것, 비누 거품, 보이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소재이다.

02 ㉑('마음 닦는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는 ㉑의 성찰적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㉒ '그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드러나 있다. ㉓ 극심한 가난으로 인한 '마을 아낙네들'의 비정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㉔ 이별 후의 고통스럽고 슬픈 모습이 나타나 있다. ㉕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처해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03 일반적으로 ㉑(청소부)이 선택하는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화자도 ㉑을 부러워하기보다 거룩하고 훌륭한 존재로 여기는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㉑ 화자는 청소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㉓ 화자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청소부를 통해 보잘것없는 일에도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04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있는 현재의 상황을 서술하는 중간에, 과거 오빠의 시신을 화장해 뿌리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하는 시간(현재)과 서술되는 시간(과거)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㉑ 현재 '나'와 친구 간의 어머니 장례 문제에 관한 의견 차이와, 과거 오빠를 화장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으나 이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주된 갈등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㉒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이 드러나 있으나 빠른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긴박한 분위기도 아니다. ㉓ 감각적 수사를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형상화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㉕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05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은 것은 묘지 문제에 관해 '나'에게 당부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백지장 같은 모습'임에도 '알맞은 온기와 약력'으로 '나'의 손을 잡은 것은, 자신이 죽거든 화장을 해서 오빠처럼 뿌려 달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이다. 즉, 분단으로 인한 한을 극복하고자 하는 비통한 의지(㉑)가 담겨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06 어머니와 '나'는 과거 아들(오빠)의 시신을 화장해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렸던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오빠처럼요?" ~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라는 어머니와 '나'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혈육을 잃은 같은 체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나'에게 ㉑과 같이 말한 것이다.

07 어머니는 과거에 오빠의 시신을 화장해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렸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으면 그때처럼 자신도 화장하여 그곳에 뿌려 달라고 하고 있다. 이는 죽어서나마 아들을 떠나보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나는 그것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부분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③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온 일을 후회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⑤ 어머니는 오빠처럼 자신도 화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③은 <보기>의 '㉔' 의미 해석의 확장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즉 ③의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진술한 것이다. 또한 세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해석의 근거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첫 번째 문장은 '㉑ [A]의 의미 해석', 두 번째 문장은 '㉔ 확장된 해석', 세 번째 문장은 '㉔ 해석의 근거', 네 번째 문장은 '㉓ 평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머지는 모두 <보기>의 경로를 제대로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9 이 글의 필자가 독서를 통해 삶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세 번째 문단에서 '책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니까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후 별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읽었다고 하였으며, (나)에서는 카메라와 관련된 책을 모두 구해서 읽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책을 통해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두 번째 문단 중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별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별 사진을 찍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와, (나)의 세 번째 문단 중 '전체 사진 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발전하게 해 준 것도 책이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필자는 처음에 한 권의 책을 통해 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가 카메라(사진)에까지 관심이 확장되어 그와 관련된 많은 공부를 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10 이 글의 필자는 독서를 통해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기>의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한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복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으라고 조언할 것이다.

11 (가)~(다)의 화자는 각각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은 잘 드러나 있다. (가)는 집을 짓고 '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는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다) 모두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의 화자는 미타찰에서 누이와 만날 것을 소망하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으나, (가)와 (나)에는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다) 모두 비참한 세계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나)에서 풀담을 끼고 가는 길, 쇠문을 굳게 닫은 담, 풀 한 포기 없는 길 등은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가)와 (다)에는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지 않다.

12 (나)의 '하늘'은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화자는 하늘을 보며 자신을 반성하고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의 '미타찰'은 화자가 미래에 죽은 누이와 만났기를 소망하는 공간으로, 누이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⑤ (다)의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이상향으로 볼 수 있다.

13 (가)의 화자는 큰길에 앞에만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대'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짓는 '집'이 탈속한 삶에 대한 소망을 상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화자의 '주머니'는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것이 화자의 내면에 있던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따라서 화자가 주머니를 더듬는 것은 화자가 내면적으로 방황하고 있음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풀'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것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것을 통해 육중한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㉔의 '풀 한 포기'도 없는 길은 삭막하고 황량한 현실 상황, 즉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험난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머뭇거리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14 A에서 '바람'은 '도화'를 지게 하는 것이지만, 화자는 바람에 의해 떨어진 낙화라도 꽃이라면서 쓸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이 낙화(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A의 '바람'이 화자의 시련을 상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다)에서 ㉑(바람)는 누이를 상징하는 ㉒(잎)를 떨어뜨린다(죽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㉑(바람)는 ㉒(잎)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B의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므로 둘 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는 반면, ㉒(잎)는 떨어짐으로써 화자의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④ B의 '나무'는 임이 그리워 병이 든(쓰러진)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반면, ㉒(잎)는 누이를 비유하는 것이다. ⑤ ㉒(잎), A의 '도화', B의 '나무'는 모두 바람에 의해 떨어지고 쓰러지는 수동적인 존재들이다.

15 (가)에서는 '흔 간', (나)에서는 '둘러내자', '돌아가자'와 같은 시어가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초려 심간이 있는 자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나)에 빛깔을 나타내는 말인 색채어는 활용되지 않았다. ③ (나)에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에는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계절감도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는 하루 동안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계절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16 (가)의 종장에서 '강산'을 '둘러 두고 보리라'라고 한 것으로 볼 때, 화자는 자연 속에서 '강산'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산'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 지은 '초려 심간'은 초라한 세 칸의 초가집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묵은 풀을 매는 밭'은 건강한 노동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한 그릇의 '보리밥'과 한 사발의 '공깃 나물'은 농부들이 일한 뒤 먹는 점심으로, 노동의 현장에서 맛보는 소박한 음식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농부가 듣는 '우배초적'은 건강한 노동 후에 느끼는 흥취로 볼 수 있다.

17 '춘풍 니불'은 '봄바람처럼 따스한 이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임이 돌아오는 날에 사용하려는 것이다. 화자가 임을 위해 새롭게 이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행동이 임과의 재회에 대한 굳은 믿음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는 것은 그 밤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된다. ③ 베어 낸 '밤'을 '서리서리' 넣어 두는 것은 '어른 남 오신 날 밤'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임이 오는 날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④ '밤'을 '구뽀구뽀' 펴는 것은 임과 함께하는 '밤'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밤'을 베어 내고 넣어 두고 펴는 행동은 재회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 태도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이 글에는 ‘서리서리’, ‘구뿔구뿔’과 같은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나, <보기>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이 글과 <보기>는 모두 평시조로 일정한 글자 수를 지키는 정제된 형식을 따르고 있다. ③ 이 글에는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나타나 있으며, <보기>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애정이 나타나 있다. ④ 이 글에는 ‘서리서리’, ‘구뿔구뿔’ 등 순우리말이 주로 사용된 반면, <보기>에는 ‘경영’, ‘조려 삼간’ 등 한자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⑤ 이 글은 ‘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배고 넓고 펼 수 있는 사물로 구체화한 발상이 드러난다. 또한 <보기>는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다.

19 이 글의 화자는 입이 없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밤의 시간을 빼어 내어 단축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입이 오는 밤인 긍정적 시간이 되면, 빼어서 넣어 둔 밤을 펼쳐 입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자 한다.

20 화자는 ‘기심디’에 올라 금강산의 만 이천 봉우리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감흥을 서술하고 있다. 금강산의 봉우리마다 땀혀 있는 기운을 묘사하고, 이를 흠어 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금강디’에서 학을 보며 신선이 된 듯한 만족감을 느끼며 자연에 동화되고 있다. 또한 ‘진혈디’에서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디’에서 ‘진혈디’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는 ‘진혈디’에서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으며, ‘블명디’에서는 십이 폭포의 장관에 감탄하고 있을 뿐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다. ④ 화자는 ‘화룡쇠’를 늙은 용에 비유하면서 바다까지 이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을 뿐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화룡쇠’에서 ‘마하연, 묘갈상, 인문재’를 넘어 ‘블명디’에 오르고 있으므로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 금강산의 봉우리가 ‘백옥’을 묶은 것처럼 아름답고 ‘동명(동해)’을 박차는 것처럼 웅장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금강산 봉우리들이 ‘부용(연꽃)을 꽃아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기도 하다며,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금강산 봉우리들이 ‘동명(동해)’을 박차는 것 같기도 하고 ‘북극’을 괴어 놓은 것 같기도 하다면서 금강산의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는 대구적 표현으로, 날고 뛰고 서 있고 솟아 있는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⑤ ‘~는 듯’이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나열하여 금강산 봉우리의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한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고 있다.

22 작가는 ‘등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생겨날 때 금강산의 봉우리들도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였다. 이는 자연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이라고 본 것이지, 자연의 미가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작가는 ‘혈망봉’을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지조를 지닌 존재로 보고 있다. 이는 지조와 절개가 있는 이상적 인간상을 ‘혈망봉’의 모습에 투사한 것이다. ② 작가가 ‘기심디’에서 맑고 깨끗한 금강산의 기운을 흠어 내어 인재를 만들고자 한 것은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자연을 바라보며 관찰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작가는 ‘블명디’에서 본 폭포를 ‘실’과 ‘뱀(베)’라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에 빗대어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작가는 ‘블명디’에서 본 풍경이 ‘녀산’보다 낫다고 함으로써 중국의 시에 등장하는 관념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적 풍경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23 총수는 유자의 대답에 대해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라고 하면서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총수가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를 통해 ‘나’가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노파’는 유자가 반찬거리를 행거 주는 것에 눈시울을 적시고 있으나,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유자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달지 않아 ~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를 통해 스페어 운전수들의 벌이가 대체로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가해자가 그를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4 [B]에서 서술자는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와 같이 유자의 심리를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⑤ [B]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주인공의 긍정적 측면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A]에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25 <보기>에서 유자는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자가 총수의 운전수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지역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자가 사용하는 사투리와 ‘벌어낸메네모(베로넬), 차에코플구심어(차이콥스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유자는 스페어 운전수들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이 글은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왔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비단잉어와 관련된 일화와 스페어 운전수들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며 유자가 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④ 총수가 상식 밖의 몸값을 가진 비단잉어를 산 것에 대해 유자가 ‘흠기눈’을 뜨고 비단잉어를 ‘땀따라 고기’라고 한 것은,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의 ‘산업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